

보도

보상체계 앞서 회칙마련 우선돼야

학생회 자치권 개선을 위한 노력

안선형 기자 37ahnd@khu.ac.kr

【국제】# 우리 신문은 교내 일부 학과에서 학생 대표직을 인의의 절차를 통해 정해온 관행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참고기사: 대학주보 1616호, 6면> 지난 보도 이후 학생회의 회칙제정을 통한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학교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보상체계에 대해 살펴봤다.

과 학생회장 선출 방식에 관한 논란에 대해 학생회 측에선 줄고 있는 학생 참여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며 ▲학과 단위에 맞는 선거 절차를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 ▲장학금 등 보상체계의 미비점 ▲학과 내 유대감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일부 단과대학에선 자체 세칙 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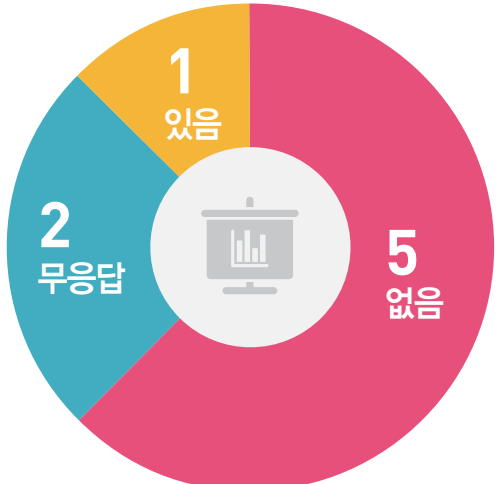
학과단위 투표 절차의 부재  
세칙 제정이 필요한 지점

총학생회(총학) 회칙 선거 11장(전공/학과 학생회) 111조 2항에 따르면 ‘과 학생회장은 과 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회칙에 따라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 학생회장의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크게 부당하여 해당 회원 내에서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단과 학생회가 직접 관여하여 과 학생회장 선출을 돕는다’고 명시돼 있다. 총학의 회칙에 따라, 단과대학 내에서의 선거방법과 시기를 정해서 직접선거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한편 단과대학 학생회 측에선 학과 단위 투표절차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회칙에 명확히 부합하자면 참관인과 추천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소수 인원의 학과에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총학 회칙에 선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과대학 학생회가 직접 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만큼, 단과대학 실정에 맞는 회칙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캠퍼스(국제캠) 단과대학 별 회칙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 현재 국제캠 소속 단과대학 중 자체 회칙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단과대학은 응용과학대학 한 군데가 유일했다. 공과대학과 생명과학대학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나머지 취재에 응한 외국어대학, 전자정보대학, 체육대학, 국제대학, 예술디자인대학은 별도의 회칙 없이 총학생회(총

국제캠퍼스  
단과대학별  
회칙 유무



학)칙을 따르고 있다.

회칙은 대표자의 선출과 관련해, 학생자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의 출발은 구성원의 투표로 인해 선출된 구성원의 대표성이다. 투표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어대학 학생회에선 단과대학 회칙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어대학 학생회 김주와(중국어학 2015)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외국어대학 학생회칙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며 “학과 및 학부 학생회장 선출에 관한 내용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 학생회칙을 제정할 예정이다”며 회칙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외국어대학의 상황과 현실에 더 맞는 학생회칙 제정을 위해 제정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과대학 회칙의 부재로 볼 때 단과대 및 학과 운영 과정이 공적인 절차보다는 관행에 기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회칙이 존재하지 않는 단과대학 소속 학과들 중 물려주기 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학과는 71%로 나타났다. 체육대학 그리고 1개 학과를 제외한 예술디자인대학에선 단과대학 회칙이 없음에도 학과 학생회장에 대한 자체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관행에 의존하고 있을 뿐, 구조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장학금 등 보상체계의 미비점  
소통이 필요한 지점**

학생회 측에선 학생자치 정상화를 위해 장학금이나 봉사시간 제공 등 학교 측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장학금 관련 행정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단과대학 별로 통일된 기준도 없고, 정해진 장학금 액수도 없는 실정이다. 예술디자인대학 소속 학

과에는 ‘밝은사회장학 C유형(단과대학생간부)’라는 명칭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일부 단과대학의 학과 학생회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학팀 최문선 계장은 “단과대 소속의 학생회 장학금은 각 단과대 내 예산 편성에서 정해진다”며 “각 단과대가 자율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어서 장학팀에는 학생회에 대한 장학금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총학에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학생지원처에서 장학팀에 요청을 했을 시 지급되는 구조로 처리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단과대학 학생회와 학과 학생회 장학금은 각 단과대학의 자율예산 내에서 처리되다 보니 각 단과대마다 기준과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단과대학 행정실에선 합의로 진행돼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외국어대학 행정실 관계자는 “학생회에 대한 장학금은 배정된 예산 내에서 매년 학과장 교수와 행정실 측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다”며 “학과장 재량이 개입되는 만큼 학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른 단과대의 상황도 비슷했다. 국제대학에서는 단과대 내의 학생회에 대한 장학금 수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단과대 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장학금 수여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체육대학에서는 학생회장이 추천한 명단을 가지고 자체심의를 통해 지급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관된 장학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총학 측은 향후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행정실 간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학생회 측은 “단과대 학생회 장학금에 대한 사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보다,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각 단과대학 행정실 및 장학팀과 논의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영어학부,  
2018년부터 두 개 학과로 개편

영어학부 두 개 학과로 개편

정현진 기자 jhj881@khu.ac.kr

【서울】영어학부(영어학과, 영문학과, 통번역학과)가 2018년부터 응용영어통번역학과와 영어영문학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문과대학 김종복(영어학) 학장은 “학부제의 문제로 지적돼 온 학문의 지나친 세분화를 막고 학생-교수 간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개편의 이유를 설명했다.

편제개편은 작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영어학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제개편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학생회는 개편 찬반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개편 의지를 학교에 전달했다. 2018년도 교과목 개설에 맞춰 11월까지 주요 사항을 확정 지어야 함을 고려하면, 개편까지 남은 시간은 8개월 남짓이다. 이 동안 교육과정을 2개 학과에 맞춰 개편해야 하고 지난해 설명회에서 김 학장이 약속한 ‘통번역학과 교수 충원’도 이뤄져야 한다. 이제까지 하나로 운영돼 온 학생회와 공동아리 운영 문제도 남아있다.

교과과정, 기존 과목 유지하며  
새로운 과목 개설 목표

지난 20일 영어학부는 교과과정 개편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재학생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과별로 전공 시행세칙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논의했다. 시행세칙은 2개과가 향후 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1998년, 현재의 영어학부 체제로 전환된 이후, 편제개편은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였다. 한 학부로 통합 운영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각 과가 개별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교수와 학생 간 교류 부족도 문제로 꼽혀왔다. 실제로 의명을 요구한 통번역학 전공의 학생은 “전공 담당 교수님이 아닌 영문학 교수님에게 진로 상담을 배정받아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효율적이고 긴밀한 학생 지도를 위해 학과제로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과과정 개편이다. 오는 10월에서 11월, 내년도 수강신청을 위해 교과목을 확정하려면 그 전까지는 개편안을 완성해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과과정은 재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과목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



편될 예정이다. 김 학장은 “기존 수업의 최소 60~70% 정도를 유지하고 나머지 과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업에서 변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라며 “재학생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향후 각 과별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학부로 입학한 17학년 학생들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는 사라질 수업에 대한 대체과목을 지정해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영어학부에는 13명의 전임교수가 소속돼 있지만 그 중 통번역학과 전임교수는 단 2명에 불과하다. 2018학년도부터 영어영문학과에 42명, 응용영어통번역학과에 41명의 신입생이 들어온다. 문과대학에서 비슷한 수준의 정원을 가진 사학과에 9명의 교수가 있음을 감안하면 응용영어통번역학과의 교수 충원율은 턱없이 낮다.

통번역학과 교수충원 시급

김 학장은 “응용영어통번역학과의 신입생 정원을 생각하면 최소 8명 이상의 교수를 두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적임자만 찾는다면 올해 안으로 2~3명까지도 채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 영어학부 학생들은 탄원서와 재학생 60여 명의 연대서명을 문과대 행정실에 전달하는 등 통번역학과 교수 초빙을 위해 노력했다. 행정 차원에서도 매 학기마다 공채를 열고 우수 교원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김 학장의 설명이다. 김 학장은 “집진적인 채용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8~10명의 교수진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학부는 늦어도 4월까지 교과과정의 핵심을 담은 초안을 완성하고 6월 말까지 모든 부분의 초안 작성을 마칠 계획이다.

2017학년도 1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다전공이수 신청 및 포기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다전공 신청 및 취소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포기 기간 : 2017. 4. 3(월) ~ 4. 7(금)

● 다전공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1)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재학 중인 자

2)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신청만으로 이수 신청을 승인함

3) 국제캠퍼스 학생 중 서울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신청하는 학생도 동일하게 신청함

4) 서울캠퍼스 학생 중 국제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제 학사지원과 안내문 참조

5) 다전공은 제3전공까지 신청할 수 있음(본인의 전공 외에 2개 전공의 다전공 가능)

※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8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호텔관광대학 학생의 동일학부 내 다전공 신청에 관한 사항은 호텔관광대학 행정실로 문의바람

나. 다전공 선발 인원(첨부 선발 정렬 참조)

1) 전년도(2016학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 경영학과는 전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을 서울, 국제 캠퍼스별로 각각 선발함

2) 연간 선발인원으로 1학기 선발 후 잔여인원을 2학기에 선발함

3) 학부 내 다전공 신청자와 연계전공 신청자는 인원 제한 없음

다. 다전공 선발 기준 : 성적, 학업계획서, 면접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별로 선발함

※ 경영대학 다전공 신청 자격 기준

- 경영학전공 : 전학년 평점평균 3.30 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 회계 · 세무학전공 : 전학년 평점평균 3.00 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라. 다전공 선발 학과(첨부 선발 정렬 및 다전공 이수 불가전공 참조)

1) 다전공 이수는 문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이과대학, 생활과학대학, 국제캠퍼스 소속 대학에 설치된 전공을 대상으로 함. 단, 폐지된 전공,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과(국제통상 · 금융투자학과,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와 국제캠퍼스 소속 전공 중 다전공 이수가 금지된 전공은 제외함

2) 다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학과(부) 편제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졸업 시에는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전공명이 변경될 수 있음

마. 다전공 신청 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클릭 → “제2전공” 란에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제3전공”까지 선택 가능) → “저장” 클릭

※ 학부편제로 소속되어 있는 학생 중 제2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제2전공 신청 후 제2전공 신청을 진행해야 함

2) 신청한 본전공 및 다전공에 대하여 트랙 신청이 가능함(2개 트랙까지 신청 가능)

3) 전공 신청정보에 “신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신청정보에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 다전공 포기 안내

가. 대상 : 이수 중인 다전공의 포기를 희망하는 재학생

나. 포기 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 [전공신청/포기] 클릭 → 이수 중인 다전공 전공명을 선택 → 빈 칸을 선택 → “저장” 클릭

2) 전공 신청정보에 “취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

다. 유의 사항

1)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다전공 포기를 한 경우, 다시 다전공을 이수하려면 새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포기 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2) 편제가 개편되어 다전공을 포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사지원과(961-0053~4)로 문의바람

● 다전공 승인 및 포기 확인 기간 : 2017. 4. 19(수) 예정

가. 확인 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전공신청

2) 승인된 경우 “상태” 필드의 내용에 “Y”로 표기됨

나. 유의 사항 : 다전공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전공 과정을 이수할 수 없음

※ 다전공 관련 세부 문의는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바람

※ 첨부 : 다전공 선발 정렬 및 다전공 이수 불가전공 안내

307

경희대학교 교무처

설국  
벚꽃

Cherry Blossom  
PARTY  
17. 04. 06

서울캠퍼스 국제경 경희인이 함께하는  
그리고 다양한 전공과 동아리가 함께하는  
경희로운 벚꽃 놀음

참가방법:

1.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검색창에 ‘@소통하는즐거움’ 친구

2. 캠퍼스/학과/학부/이름/나이 기재 후 ‘설국벚꽃 신청합니다’

3. 위 방법 모두 시, 아해 문의번호로 문자 발송

기타 안내

05:00

경희대 국제경 경희인이 함께하는  
그리고 다양한 전공과 동아리가 함께하는  
경희로운 벚꽃 놀음

문의처: 서울캠퍼스 국제경 경희인  
문의처: 서울캠퍼스 국제경 경희인